

송암 권오록 고문 경북지역 코로나19 특별성금 5억 기부



송암(松巖) 권오록(權五鹿, 35세, 추밀공파) 고문이 지난 6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상북도에 5억원의 특별성금을 기부했다. 경북지역 코로나19 특별성금 중 개인 최고액이다. 권 고문은 “1월 6일 신문을 봤는데 요새 코로나가 발생해서 사람들 이 죽는다는 기사를 보니까 불현듯 해방되던 해 10살쯤 되던 해인데 고향에서 호열자 인가 염병인가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때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에게 밤낮으로 침 놔주 시고 한약을 먹이면서 한발만 뛰어봐라 세 발만 뛰어봐라 하시면서 치료해 주시며 돌 아다니셨던 아버지 생각이 나서.... 전염병 무서운 줄은 그때 알았다.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사람이 죽는다는데 시간을 다투는 급한 일이 벌어졌으니 빨리 미리미리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바로 거래은행으로 가서 송금했다”고 말했다.

권오록 고문의 얘기는 “맹자” 公孫丑(공손추) 상편에 있는 내용을 떠오르게 한다. 지금 느닷없이 어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본다면 누구나 깜짝 놀라서 죽은한 마음을 갖고 달려가 어린아이를 구할 것이다. 見孺子將入於井 皆有撫揚側隱之心/견유자장입어정 개유출적죽은지심 이는 그 어린아이의 부모와 교제하기 위한 것 도 아니고, 동네 친구들에게 칭찬을 들으려는 것도 아니며, 어린아이를 구해 주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도 아니다. 인간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측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

편집국장 권행완



권태홍 할아버지

어머니와 아버지(권영국)

홍조근정훈장

권오형 경희대학교총동문회장

서울청장년회 고문으로 추대

권오형 경희대학교총동문회장이 서울 청장년회 고문으로 추대되었다. 권정호 서울 청장년회 회장과 권순용 서울 청장년회 수석부회장 및 권승호 전 서울 청장년회 회장은 서울 청장년회원들의 정성과 마음을 모아 권오형 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하였다. 권오형 회장은 고문직 추대를 흔쾌히 수락하면서 앞으로 안동권문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성심을 다해 고문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오형 고문은 경희대를 졸업하고 경영학박사이며 현재 경희대학교 총동문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림합동회계사무소 및 대



성회계법인 대표이사(전), 공인회계사 시험, 사법고시, 행정고시 등 출제위원(전), 한국세무학회 이사 및 부학회장(전), 손해배상책임 제도 개선 위원장(전)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시민단체(YWCA, 기독교교도소, 훌리클럽) 감사(현), 삼덕회계법인 대표, 경희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현)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대통령 포장 및 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미대동 3·1운동’ 권재갑 지사 대통령표창

대구광역시 마을 문중 단위 독립만세운동인 ‘미대동 3·1 만세운동’에 참여한 고(故) 권재갑 애국지사에 대한 대통령 표창이 지난 3월 1일 수여됐다. 권 지사는 미대동 만세운동에 참여했음에도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받지 못했다. 권재갑 지사와 함께 1919년 4월 26일과 28일 미대동 여봉산에 올라 만세운동을 벌인 다른 애국지사들은 1980~90년대 모두 표창을 받았다. 권 지사에게는 후손이 없어 최주원 미대여봉산 3·1만세운동기념비 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이 권 지사에 대한 공적 유공 표창이 수여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하여 2020년 3·1 운동 101주년 기념일에 받게 된 것이다.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독립유공자 공적에는 1919년 4월 28일 경북 달성군 공산면 미대동 동쪽 산에 올라 한국독립만세를 외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성명 권재갑(權再甲, 생년월일 1900-03-27, 사망년월일 미상, 본적 경상북도 달성 공산 미대 770)이다.



이에 따라 대구 미대마을 애국지사 8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미대마을 3·1 독립만세운동기념비추진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동구 미대동 747-18에서 대구지역 내 유일한 마을 단위 독립만세운동인 ‘미대마을 3·1 독립만세운동’ 기념비 제막식을 거행했다.

대종회 고양시에 충장공 권율도원수 영정 제작 등 촉구

대종회에서는 행주산성 충장사를 관리하고 있는 고양시에 지난 3월 4일 충장공 권율도원수의 원본 영정이 도난당한 지 20여 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지한 상태로 현재 복사본 영정을 충장사에 봉안하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영정 제작과 함께 제작 후 표준영정 지정 등 영정 관리 전반에 대한 계획 수립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고양시에서는 2021년



3월 14일 제428주년 행주대첩 기념행사는 새로운 영정이 봉안된 상태에서 봉행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편집국장 권행완

100만 족친여러분! 한복과 도포는 한복의 명가



에서 마련합시다

족친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원시 마산에서 신화직물 우영경 한복점을 45년째 운영하고 있는 권태형(35세)입니다. 45년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족친여러분에게 선비의 의상, 한복과 도포를 최고의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족친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가격표	
안동포 한국산 특-A	도포1벌(기타 부속 일절) 2,350,000원 한복 상하 1벌 1,450,000원 계 3,800,000원
안동포 한국산 특-B	도포1벌(기타 부속 일절) 1,950,000원 한복 상하 1벌 1,200,000원 계 3,150,000원
수입원단 A	도포1벌(기타 일절) 1,450,000원 한복 상하 800,000원 계 2,250,000원
수입원단 B	도포1벌(기타 일절) 1,100,000원 한복 상하 450,000원 계 1,550,000원

*한복과 도포는 개별 판매 가능합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북10길 48(창동) 대표 전화번호 055-244-5555 / 권태형 010-3599-7671

마·창·진 종친회장, 안동권씨 지역종친회장협의회 간사 권태형

동정



▲권광석 우리은행 행장(57·사진)이 지난 24일 취임했다. 1963년생인 권 행장은 울산 학성고, 건국대를 졸업하고 연세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8년 우리은행(옛 상업은행)에 입행해 기업금융(IB) 그룹 겸 대외협력단 집행부행장을 거쳐 우리PE 대표이사,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를 역임했다. 권 행장은 은행의 글로벌 전략 추진에 최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 본부장은 충주 출신으로 충주고와 중앙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입사했다. 세종특별본부, 대전충남지역본부 등 다양한 현장경험과 본사 환경교통단, 사업영향평가단 두루 근무한 토목, 환경, 사업평가 전문가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권택한 신임 지사장이 1월 6일(월) 취임하였다. 권 지사장은 1988년 공사에 입사하여 구미김천지사 농지은행부지 및 경북지역본부 농지은행부지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권용수 (주) L&K 대표가 세계 한인 무역협회(이하 월드옥타) 제15 대 월드옥타 도쿄 지회장 취임했다.



권 신임 지회장은 2013년 일본에서 화장품 전문 회사인 (주)L&K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지회장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월드옥타는 1981년 창립한 재외동포 경제단체로, 전 세계 68개국 141개 지회에 7천여 명의 회원사와 2만1천여 명의 차세대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도쿄지회는 월드옥타 창립과 함께 초창기 협회를 이끌어온 지회로 재일동포 및 한인 경제인들의 경제공동체 결성에 앞장서고 있다.



▲권순기(61) 교수 경상대 제11대 총장에 선출되었다. 지난 2월 19일 직선제로 실시된 이번 선거는 권순기 교수(공과대학 나노·신소재공학부)와 권진희 교수(공과대학 기계항공정보융합공학부)가 출마했다. 뿐만 아니라 총장임용주권위원회 권오현 위원장이 선거를 주관하여 안동권문끼리 출마하고 선거를 관리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권순기 교수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경상대학교 제9대 총장,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전략위원회 위원장, 경상대·삼성디스플레이 OLED연구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권영뢰씨가 지난 1월 1일자로 목우촌 김제육가공공장 장장으로 부임했다. 목우촌 김제육가공공장은 목우촌의 자존심이자 목우촌사업의 메카이다. 권 장장은 무곡고등학교와 단국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목우촌에 입사해 목우촌 수출특판부장과 경영관리부장을 역임했다. 축산업 활성화 유공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